
第9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7年2月17日(月) 午後2時 開式

第9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對한묵념
 1. 開會辭
 1. 閉式
- (司會：議事擔當官 金大根)
-

(14時 18分 開式)

○議事擔當官 金大根; 지금으로부터 제92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묵념을 하시겠
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文一權 議長님께서 開會辭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文一權; 존경하는 趙淳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설레임과 희망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丁丑年 새해도 어느덧 4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議會는 시민의 代表機關답게 가장 民主的인 방법으로 제4대 後半期 院構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시민의 요구와 自治時代에 부응하는 새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臨時會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업무계획을 들은 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한보사태와 달러화의 급등, 수출의 부진 등으로 개인소득 1만불 시대의 문턱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開放化·世界化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외국과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여 총체적인 위기상태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치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모든 公職者는 물론 社會指導層부터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고통을 시민과 함께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執行部에서는 지난 긴 겨울 동안 한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해빙기인 점을 인식하여 대형공사장, 공동주택, 도로·교량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하여 만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본격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市の 9조 3,000여억 원과 教育廳의 2조 7,300여억 원 등 총 12조 300여억 원이 집행단계에서 낭비성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시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해의 행정을 총점검한 96行政事務監査 결과 1,142건의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시민의 편에서 개선되고 있는가를 재점검하여 議會와 執行部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교통종합대책, 녹지 확충 5개년계획, 저소득시민 지원대책 등 시민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충족되도록 議會 차원의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教育行政에 있어서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학교폭력의 예방, 청소년들의 선도교육은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地方自治時代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市議員의 역할이 실로 무한하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議員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바쁜 정치일정 속에서도 다른 어느 해보다도 市政 및 教育行政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기능이 많아질 것

이며 기대 또한 매우 높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저변에 널리 퍼져있는 민의를 끊임없이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議員 모두가 보다 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때 中央集權時代의 불합리한 각종 法令과 制度들이 地方自治時代에 맞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92회 臨時會 開會式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金大根; 이상으로 제92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 26分 閉式)